

COME & SEE

2026 BETHEL THEME

"와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을 보라
사람의 아들들에게 행하심이 엄위하시도다"
(시편 66장 5절)



담임목사: 김한요
Rev. Bryan Kim, Lead Pastor

18700 Harvard Ave., Irvine, CA 92612 ♦ www.bkc.org ♦ bethel@bkc.org
Tel: 949.854.4010 ♦ Helpdesk(Text-only): 949-229-1181

교회학교 및 그 외 주일예배 안내



- 영아부(0-1.5세) / 본당 1층 영아부실
9:00AM, 11:00AM
- 유아부(1.5-3세) / 본당 2층 유아부실
9:00AM, 11:00AM
- 유치부(3세-PreK) / 할렐루야채플
9:00AM, 11:00AM
- K-1(킨더가든-1학년) / 임마누엘채플
9:00AM, 11:00AM
- 유년부(2-3학년) / 유년부실
9:00AM, 11:00AM
- 초등부(4-5학년) / 체육관
9:00AM, 11:00AM
- 영어중등부(BYM JHS) / 찬양채플, 비전채플
9:00AM(찬양채플), 11:00AM(비전채플)
- 영어고등부(BYM HS) / 비전채플, 비전센터109호
9:00AM(비전채플), 11:00AM(비전센터109호)
- 한어중고등부(CIM) / 살롬채플
11:00AM
- 소망부(장애인) / 조이채플
9:00AM, 11:00AM
- BETHEL GRACE CHURCH /
베델그레이스채플, 온라인
9:00AM, 11:00AM
- 日本語 礼拝 / 살롬채플
9:00AM

담임목사 방송설교 안내

- 공중파 TV 방송:
미주 CGN TV 채널 44.9 · 화요일/오후 3시
- 케이블TV 방송 (CTS America):
TV DirecTV 채널 2092 · 공중파 채널 18.8
화요일/오후 6시 45분 · 목요일/오후 12시 30분
- 라디오 방송 (GBC 미주복음방송):
주파수 AM 1190 KHZ · 금요일/오후 1시

주 일 예 배 Lord's Day Worship Service

1부 예배 | 7:00AM 2부 예배 | 9:00AM 3부 예배 | 11:00AM 4부(청년) 예배 | 2:00PM

- *예배의 부름 Call to Worship Presider 예배 인도자
- *신앙고백 The Apostles' Creed 사도신경 Altogether 다같이
- *찬양과 경배 Praise & Worship Bethel Worship 베델 워십
1부/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찬43/새40장)
- 기도 Prayer..... Altogether 다같이
1부/마상오 집사 2부/박원규 장로 3부/손석환 집사 4부/윤지섭
- 찬양(1부) Anthem..... Bethel Choir 베델 콰이어
1부/깨뜨린 옥합(이현철 편곡)
- 영상광고 Media Announcement Media 방송실
- 성경봉독 Scripture Reading 1, 2, 3부/요한복음(John) 3:16-21 Altogether 다같이
4부/요한복음(John) 7:53-8:11
- 말씀 Message 1, 2, 3부.....Rev. Bryan Kim 김한요 목사

궁예(4)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왜 지옥이 있는가?

4부Rev. Solomon Kang 강솔로몬 목사
Solus Christus(28)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 적용찬양 Song of Response Altogether 다같이
1, 2, 3부/빛 되신 주,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 *결단찬양 및 봉헌 Song of Dedication and Closing Altogether 다같이
1, 2, 3부/나 같은 죄인 살리신(찬405/새305장)
- *축도 BenedictionRev. Bryan Kim 김한요 목사
- *표는 모두 일어나 주십시오.
- ★ 온라인 예배와 현장 예배가 동시통역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www.bkc.org)

담임목사 칼럼
Lead Pastor's Column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삶의 은혜

The Grace of Life When Things Don't Go My Way



김한요 목사 / Rev. Bryan Kim

"골프와 자식은 맘대로 안 된다"는 골퍼들의 푸념은 비단 운동이나 자녀 교육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공이 어디로 튈지 모르듯, 정도를 벗어나 통제에서 벗어나는 일상은 결국 '인생이란 내 뜻대로 흐르지 않는다'는 본질을 날카롭게 보여줍니다.

제 동창 중에도 두 아들을 프로 골퍼로 키우기 위해 20년 넘게 기러기 아빠로 살며 모든 것을 희생한 친구가 있습니다. 대학교 때 우승을 차지하며 프로로 전향할 만큼 유망했던 아들은 지금은 평범한 직장인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가장 맘대로 안 되는 두 종목, 골프와 자식을 두고 온 부부가 헌신했던 친구의 마지막 고백 역시 "참 맘대로 안 된다"는 허탈함이었습니다. PGA 토너먼트 왕좌에 올랐던 박세리, 최경주 선수 같은 최고 프로들조차 똑같이 인정할 만큼 인생과 골프는 결코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여기 한 도예가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는 완벽한 항아리를 만들고자 매일 정성껏 흙을 반죽하고 물레를 돌렸습니다. 하지만 가마에서 구워져 나온 도자기들은 늘 그의 계산과 달리 조금씩 비뚤어지거나 예상치 못한 색깔로 변해 있었습니다. 화가 난 도예가가 수없이 작품을 깨트리며 좌절할 때, 노스승이 다가와 말했습니다. "불과 바람의 역사를 인정하게. 네가 손으로 흙을 만질 수는 있지만, 아름다운 그릇으로 완성하는 것은 가마 속 불의 영역이라네."

우리 인생도 이와 같습니다. 내 힘과 계산으로 삶을 완전히 주도하려는 집착이 강해질수록 찾아오는 것은 깊은 좌절과 무력감뿐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내 한계를 겸손히 인정할 때 비로소 하나님의 일하심이 시작된다고 알려줍니다. 잠언 16장 9절은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고 말씀합니다. 내 맘대로 되지 않는 통제 불능의 순간은 역설적으로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님을 깨닫게 하는 거룩한 도화선이 됩니다.

엠마오로 내려가던 낙심한 제자들 곁에 가만히 찾아오셔서 함께 길을 걸어 주셨던 예수님처럼, 사람과 인생을 변화시키는 것은 날카로운 주장이나 강압적인 통제가 아니라 따뜻한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는 현실 앞에서 조바심을 내려놓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려봅시다. 내 손을 떠난 공처럼 불안해 보이는 삶일지라도, 그 걸음을 친히 이끌어 주시는 신실한 주님의 손길이 이미 우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The golfers' complaint that "golf and raising children never go the way you want" is not limited to sports or parenting. Just as you never know where a golf ball will bounce, everyday life departing from its expected course or spinning out of control sharply exposes the core reality that 'life does not flow according to my will.'

Among my former classmates, there is a friend who sacrificed everything for over 20 years, living as a long-distance-dad to raise his two sons to become professional golfers. His son, who was promising enough to win competitions in college and turn professional, now lives as an ordinary office worker. The final confession of this friend couple, who devoted themselves to golf and children, two things that least follow one's will, was also a sense of emptiness: "Things really don't go as planned." Neither life nor golf is ever easy, as even top professionals like Se-ri Pak and K.J. Choi, who reached the heights of PGA/LPGA tournaments, readily acknowledge.

Here is a story of a potter. Seeking to create a perfect jar, he kneaded clay devotedly every day and spun the potter's wheel. However, the potteries that emerged baked from the kiln were always slightly warped or changed into unexpected colors, contrary to his calculations. When the angry potter smashed countless works in frustration, an old master approached him and said: "Acknowledge the work of fire and wind. You can touch the clay with your hands but completing it into beautiful jars belongs to the domain of the fire inside the kiln."

Our lives are the same. The stronger the obsession to completely control life through my own power and calculation, the deeper the frustration and helplessness that follow. However, the Bible teaches us that God's work begins only when we humbly acknowledge our limits. Proverbs 16:9 states, "In their hearts humans plan their course, but the Lord establishes their steps." Paradoxically, moments that don't go my way and are beyond control become a holy catalyst that makes me realize I am not the master of my own life.

Just as Jesus quietly came alongside the discouraged disciples walking down to Emmaus and walked with them, what transforms people and life is not sharp insistence or coercive control, but warm love and God's grace. In the face of a reality that does not go according to my will, I let go of anxiety and wait for the Lord's guidance. Even if life seems as uncertain as a ball that has left my hands, the faithful hand of the Lord—personally guiding those steps—is already with us.



1-3부 설교노트 / 나눔교재

설교자: 김한요 목사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왜 지옥이 있는가?

(요한복음 3:16-21)

1. 부모가 아이들에게 하지 못하도록 금하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이들은 그것이 부모가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을 사랑하지 않는 증거라고 생각했던 적은 없는지요?(17-18절)

적용하기



2. 우리가 심판을 받는 첫 번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예를 들어 설명해 보십시오.(19절)

3. '죄는 하나님 사랑이 아닌, 어둠을 사랑하는, 즉 사랑의 ()이 뒤뜰린 문제입니다.' 아래 참고 구절을 읽고 그 의미를 나누어 봅시다.(참고/ 시 50:21, 창 3:5)

4. 우리가 심판받는 두 번째 이유는 빛을 미워하기 때문입니다.(20절) 말씀을 듣는 것은 우리 영혼을 향하여 하나님이 빛을 비추는 것과 같습니다. 빛의 기능을 아래 빈칸을 채우며 확인하십시오. (참고/ 사 53:4-5)

'빛은 어둠에 감춰진 ()를 드러내고, 치료의 길, ()로 인도합니다.'

5. 셀식구 여러분, 빛으로 나오십시오. 빛 가운데 나오면 죄가 보입니다. 그러나 죄보다 십자가가 크고, 상처보다 은혜가 크며, 우리의 실패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언제나 더 큼니다. 오늘 빛 되신 예수님을 마음에 모셔 들이셨는지요?

■ 적용찬양: 빛 되신 주,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선교 후기

멕시코 티후아나

생명수를 경험하는 축복의 시간



이번 중등부 멕시코 선교는 하나님께서 제 믿음과 아이들의 믿음을 함께 빚어 가신 시간이었습니다. 출발 전부터 까다로운 국경 검사를 준비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했고, 선교센터에 도착한 후에는 예상치 못한 단수로 큰 어려움을 마주했습니다. 물이 없어 식사 준비와 샤워, 화장실 사용까지 모두 불편해지자 저도 모르게 아이들을 제 기준으로 바라보며 불평과 염려가 앞섰습니다.



그러나 저녁 예배에서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를 흘려보내야 한다는 말씀을 듣는 순간, 하나님께서 먼저 제 마음을 돌아보게 하셨습니다. 제 교만과 인간적인 기준을 회개하게 하였고, 하나님께서 상황보다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계심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아이들은 놀랍게 달라졌습니다. 더위와 단수에도 불평하지 않고 코걸 아이들과 함께 뛰어다니며 기쁨으로 VBS를 섬겼습니다. 물이 부족해 2분 만에 샤워를 하고 물을 아껴 써야 했지만, 누구 하나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아이들의 간증은 자신

의 기분을 말하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그 기쁨의 근원이 예수님이심을

고백하는 간증으로 바뀌었습니다.

넷째 날 물이 다시 공급되면서 물놀이와 세족식을 감사함으로 진행할 수 있었고, 저 역시 하나님께서 모든 상황 속에서 가장 선한 방법으로 일하신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경험했습니다. 성도님들의 기도 가운데 아픈 학생 한 명 없이 모든 일정을 잘 마칠 수 있었고, 단수라는 예상치 못한 어려움은 오히려 하나님의 끊이지 않는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수를 더욱 깊이 경험하는 축복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은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요 4:13-14)

위우정 집사

예배 간증

엘리사 새벽기도회

예수님의 조각들을 만나는 은혜

이번 7월 28일부터 7월 31일까지 드러진 기도팀이 함께한 엘리사 새벽기도를 통해 누렸던 하나님의 은혜는 제가 속한 공동체가 얼마나 귀한 이들과 함께하는지 더욱 확실히 깨닫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앞에서는 잘 드러나지 않지만 저희 베델 공동체를 위해 기도로 오랜 기간 섬겨 주신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매주 일 1, 2, 3부 예배 때마다 함께 모여 기도하는 레위기기도와 환우 및 곤고한 지체를 위하여 탄식하며 함께 기도하는 두드림 기도사역, 골방에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는 골방기도, 그리고 1년에 봄, 가을 학기 때 13주간 함께 모여 기도하며 배워 가는 기도학교를 통하여 함께하시는 기도의 동역자분들이 계십니다. 이 많은 분들께서는 자신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주님의 몸 된 교회를 위하여 기도로 함께하십니다. 이런 분들이 한자리에 모여 새벽을 깨우며 함께 기도하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이렇게 함께 기도하는 분들의 특별한 점은 모두 하나님 앞에서, 또 공동체 안에서 순수함이 지켜진 분들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른 새벽에 그냥 나오기도 힘든 시간에 함께하는 분들을 위하여 자원하여 간식을 준비하며 진심 어린 미소를 보이시는 분들과, 겸손함으로 묵묵히 섬기시며 주변을 세워 주시는 분들의 모습을 통하여 저 또한 그분들을 통해 나타나는 예수님을 닮고 싶어지는 도전을 받았습니. 간식을 나누며 찬양을 연습하는 시간에는 모두 하나님 안에서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을 보이는 그 순수함이 좋을 뿐 아니라, 제가 이런 자리에 함께 한다는 것이 감사했습니다.

특히 이번 엘리사 새벽기도에는 매일 김한요 목사님과 황모세 목사님 두 분의 동사 묵회를 위하여 기도하셨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시기에 저희 온 교회가 기도로 준비하라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며 손용주 목사님께서 기도를 인도해 주실

때 제 마음에 큰 울림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부족한 저에게도 교회의 중요한 순간에 기도의 동역자분들과 함께 기도하는 일에 참여하게 하심이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이번 엘리사 새벽기도에서 어두운 새벽에 해와 같이 빛나는 예수님의 조각들을 가까이서 만나는 특별한 은혜를 누렸습니다.

양승화 집사



예배 간중
신학강좌

확실한 절대사랑 부활



언제부터인가 뭔지 모를 불확실한 현실이 나를 휘감으며, 나의 삶은 막막한 비틀림의 연장선이 되어 평안이란 단어와는 멀어졌고, 내적인 평안이 무너진 채 모든 것이 단절된 것 같은 일상 속에 나를 밀어 넣었습니다. 불확실한 믿음의 자아를 잃어가고 있을 무렵, 제10차 '불확실성의 시대를 조명하다'를 주제로 한 한여름의 시원한 신학강좌는 나에게 처한 현실에 너무 부합되는 제목이었고, 그 제목에 이끌려 나도 모르게 신학강좌에 빨려 들어가듯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세분의 목사님께서 불확실한 자아, 불확실한 가정, 불확실한 관계 등 불확실한 부분들을 조목조목 짚어 주시면서 그것들의 이유를 여러 각도에서 분석해 주셨고, 이 모든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것임을 설명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신뢰 대신에 나의 사랑과 나의 신뢰가 자리를 잡아 많은 부분을 차지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사랑과 신뢰의 자리에는 의심과 두려움만 작동하고 있음을 알게 하셨습니다.

불확실한 삶을 살면서 혼란이 가득한 시대에 우리는 무엇을 믿고 어디에 소망을 두어야 할 것인지, 산(Living) 소망을 가져본 적이 언제이며 그 의미를 생각해 본 적은 있는지도 자문하게 되었습니다.

야고보서에서 조금도 의심하지 말고 믿음으로 구하라고 하지만, 구하면서도 늘 믿음 뒤에 따라 오는 의심이 동반됨을 말씀을 통해 알게 하였고, 야고보가 안개와 같다고 말한 것은 생명이기에 그때를 알지 못하는 현실에서 공허함을 증명하

는 죽음의 현실이 점점 더 두려움으로 다가옴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또한 인간의 불행은 죽음이 증거하고 있는 하나님 없음의 절망임을 깨달아, 이 불확실한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생명이 있기에 인간의 존엄을 회복함으로 영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그것이 생명임을 깊이 인지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적당히 믿고 사는 것이 지혜로운 모습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이것이 신앙인들의, 그리고 나의 불안의 원인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게 하셨습니다.

부활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애매한 신앙의 상태를 낮뜨겁게 알게 하시고, 모든 것이 불확실하지만 지금 우리에게 가장 확실한 것은 우리 앞에 있는 죽음, 그리고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 확증된 부활이 확실히 존재한다는 사실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삶이 불확실할 때마다 완전한 사랑을 몸소 보여주신 예수님의 확실한 부활과 십자가의 사랑이 절대적인 사랑임을 다시 한 번 각인시켜 주시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절대적인 사랑을 십자가로 몸소 보여주신 예수님의 사랑을 더 깊이 신뢰하며, 그 사랑에 스며드는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강은혜 집사

'불확실한 시대를 조명하다'라는 이번 신학강좌의 주제는 마치 저희 가정과 삶의 현장을 그대로 비추는 듯했습니다. 집에서는 세 아들을 키우는 엄마로, 일터에서는 남편과 함께 비즈니스를 일

구는 동역자로 살아가는 저에게 매일 마주하는 삶은 늘 예측할 수 없는 흔들림과 염려의 연속이었기 때문입니다. 과연 내가 이 다채로운 역할들을 잘 감당해 내고 있는지, 불확실한 세상 속에서 아이들을 바른 믿음으로 세워 가고 있는지 늘 마음 한구석이 무거웠습니다.

하지만 매 강좌를 통해 선포된 말씀은 내일의 불안과 염려에 매여 있던 저의 시선을 온전히 주님께로 돌려놓아 주었습니다. 엘리사를 찾아가는 과부의 이야기처럼, 우리 삶의 빈 그릇과 약함을 숨기지 않고 하나님과 교회 공동체 앞에 솔직하게 내어놓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삶의 빈자리에 충만히 채워짐을 깊이 깨달았습니다.

강좌가 끝난 지금, 환경은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을지 모릅니다. 여전히 아이들과 정신없이 하루하루를 지내고, 남편과 함께 헤쳐 나가야 할 세상을 살아가는 일은 아슬아슬하기만 합니다. 하지만 불확실한 미래보다 비교할 수 없이 더 확실하신 예수님이 이미 내 삶과 가정의 주인 되시기에, 저는 오늘 하루를 감사함으로 담대히 살아갈 충분한 이유를 얻었습니다.

이제 남편과 손잡고 일구어 가는 사업장이 단순한 생계의 터전을 넘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고 이웃을 따뜻하게 섬기는 거룩한 비즈니스 선교의 장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주일마다 유아부 교사로 만나는 작고 어린아이들의 맑은 눈망울 속에서, 불확실한 이 세상을 환히 조명할 하나님 나라의 확실하고 빛나는 미래를 봅니다.

내 힘으로 완벽해지려는 욕심을 내려놓고,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겸손한 '빈 그릇'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우리 가정과 일터, 그리고 교회에서 서로의 연약함을 품어 주는 은혜의 동역자가 되기를, 그리하여 이 어두운 시대에 주님의 밝은 빛을 발하는 통로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성지현 집사

교회학교
소망부 VBS

은혜를 만나다



하나님은 소망부 봉사가 나에게서 힘겨운 일이라고 생각하던 나의 편견을 깨뜨리시고, 소망부 VBS 시작 전날 "내 몸을 내어드리면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마음을 갖게 하셨습니다. 소망부 VBS 첫날 아침, 뜨거운 환영을 받으며 교회로 들어오는 소망부 아이들과 부모님들의 얼굴에서 놀라움과 행복이 어우러진 환한 웃음을 보았습니다. 빼곡하고도 행복했던 하루의 일정을 아이들과 함께 보낸 뒤, 밤이 되어 피곤한 몸으로 잠을 청하려는데 발달장애를 가진 아이들의 얼굴이 하나씩 떠올랐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극히 사랑하시는 이 아이들을 베델에 맡기셨음을 깨닫게 하셨고, 아이들을 생각하며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소망부 VBS를 통해 나는 마치 축소된 하나님의 나라를 미리 경험한 듯했습니다. 소망부 아이들처럼 마음이 깨끗하지 않으면 들어갈 수 없는 나라를 엿본 것 같았습니다. 소망부 아이들은 때로는 투정을 부리기도 하지만, 영이 맑고 순수한 아이들입니다. VBS 기간 동안 아이들과 봉사자들은 모두 함께 기쁨으로 뛰며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곳에서 나는 소망부 아이들과는 다른, 영적으로 발달장애를 가진 나 자신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보실 나의 영적 모습은 아이들만큼도 자라지 못했고, 육신은 영과 따로 움직이고 있었으며, 나의 영은 인간적인 편견과 오만으로 오염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소망부 VBS를 통해 나의 영도 소망부 아이들처럼 맑고 깨끗해져야 하나님 나라에 이를 수 있음을 보여주셨습니다.

2026 소망부 VBS 또한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과 풍성한 은혜 가운데 진행되었습니다. 베델

의 많은 손길이 하나 되어 빈틈없이 준비해 주셨고, 그 결과 소망부 학생들과 부모님들, 그리고 모든 봉사자들이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선하심을 함께 경험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번 소망부 VBS를 섬기며 시편 23편 1절 말씀, '여호와야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이다.'를 마음에 깊이 새기고 묵상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번 VBS를 통해 아이들과 부모님들, 그리고 저를 포함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온전히 인정하고 의지할 때, 어떤 환경과 어려움 속에서도 참된 평안과 위로를 경험할 수 있음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또한 VBS를 준비하고 섬기는 과정에서 사람의 인정이나 시선보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마음과 사랑으로 봉사할 수 있도록 기도하며, 제 자신을 돌아보는 귀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저를 사용해 주시고, 소망부 아이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안에서 믿음으로 더욱 성장하며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섬길 귀한 기회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모든 순간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겸손한 마음으로 맡겨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사랑으로 섬기는 사람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민금숙 권사

조흥식 집사

간이었습니니다. 매년 VBS에 참여했지만, 올해는 사랑이가 그 어느 때보다 기뻐하며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자라나는 모습을 볼 수 있어 더욱 감사했습니다.

사랑이는 평소에도 큐티와 Bethel Kids 찬양, 말씀 영상을 통해 하나님을 가까이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이번 VBS에서도 찬양과 율동에 기쁨으로 참여하며 즐거워하는 모습이 더욱 감사하게 다가왔습니다. 교회에 가는 차 안에서도 VBS 찬양을 신나게 부르는 모습을 보며 부모인 저도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또한 아이들이 매일 말씀을 가까이할 수 있도록 큐티 책을 선물해 주신 염 권사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 섬김 덕분에 아이는 지금도 매일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을 알아가는 기쁨을 누리고 있습니다. 특별히 올해는 같은 반 친구와 함께 VBS에 참여하며 더욱 즐겁게 예배하고 소중한 추억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아이들을 사랑으로 품어 주시고 정성껏 섬겨 주신 김재은 전도사님과 모든 선생님, 봉사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헌신과 사랑 덕분에 아이들이 기쁨으로 예배하며 예수님의 사랑을 더욱 가까이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소망부 VBS를 통해 사랑이가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 깊이 경험하고 믿음 안에서 한 걸음 더 성장한 것 같아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모든 순간이 은혜였고, 아이를 통해 저 또한 많은 은혜를 누리는 시간이었습니다. 저희 가족에게 이번 VBS는 오래도록 기억될 하나님의 소중한 선물이었습니다

안예은 집사

이번 소망부 VBS는 저희 가족에게 큰 은혜의 시

담임목사: 김한요 목사

◎목회자◎

기획/행정/QTin: 조동현 목사
 소망/선교: 이충경 목사
 기쁨/찬양/전도: 박경철 목사
 화평/온유/섬김: 박성권 목사
 사랑/셀/울림: 조태현 목사
 충성/Joy/훈련: 서동민 목사
 은혜/새가족/BCA: 배홍수 목사
 믿음/예배: 이형석 목사
 BGC 담임: Dan Nam 목사
 BGC(College/Worship): Peter Lee 목사
 BGC(Young Adult): Daniel Yoon 전도사
 예심채플(총괄): 강솔로 목사
 예심채플: 공병주 목사
 예심채플: 최요셉 인턴 전도사
 영어고등부: 김한나(Hanna) 전도사
 교회학교(총괄)/영어중등부: 현호승(Daniel) 목사
 영어중등부: 신재민 전도사
 한어중등부: 이성우 목사
 초등부: 이지원(Cindy) 전도사
 유년부: 이송진(Sharon) 전도사
 K-1: 정가영(April) 전도사
 유치부/아기학교: 전소연 전도사
 유아부: 이경은 전도사
 영아부: 최미정 전도사
 소망부: 김재은 전도사
 환우: 정티나 목사
 Beyond the Blue: 오경희 전도사
 병원심방: 김현일 협동목사
 상담: 황성철 협동목사
 의료상담: 이강민 전도사

◎베델 코어 및 찬양팀◎

지휘자: 김형직 목사
 솔리스트: 최정원
 뮤직디렉터: 정봉화
 반주자: 한현미, 박정연
 예심 위임: 조요셉

◎교회 직원 및 간사◎

사무장: 조주은
 건물/차량관리: 김유호
 사무실: 인현미, 이미옥
 재정실: 이수민
 방송실장: 박주남 전도사
 방송실: 민윤기, 김앤드류(인턴)
 목회지원/크리에이티브 디렉터/음향: 최철기
 콘텐츠 디렉터: 최중형
 음향: 강창위, 한 진
 디자인: 박선경
 웹/IT: 김정아
 수양관: 오춘란

사역광고

하반기 BAM 훈련 모집

주일 예배는 은혜로운데 월요일 아침 우리의 현실은 왜 이렇게 막막한가요? 혹시 성도님도? 아래의 30초 자가 진단 질문 중에 하나라도 체크하셨다면, 이 훈련은 당신을 위해 준비된 것입니다.

- ☐ 주일엔 은혜 받고, 월요일부터 현실에 치이며 산다.
- ☐ 선교는 동경하지만 나오는 너무 먼 이야기 같다.
- ☐ "내 일에 하나님이 함께 하고 계신가?"라고 생각해 본 적 있다.
- ☐ AI 시대의 불확실성 속에 크리스천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겠다.
- ☐ 마음에 품은 사업 아이템이나 꿈이 하나쯤 있다.

BAM(Business As Mission)은 '내가 서 있는 이 자리가 곧 선교지입니다.'라는 고백입니다. 가정에서, 학교에서, 직장에서 우리가 매일 밟고 있는 그 땅에서 어떻게 복음을 살아내고 하나님 나라의 영향력을 흘려 보낼 수 있는지 함께 배우고 고민하며 실천합니다.



훈련 대상은 누구나 자유롭게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배우는 내용은 일상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실용적인 내용들로 알차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각 단계를 통해 실제 사례를 연구하고, 의미 있는 프로젝트를 직접 수행하며, 모의 창업 과정까지 경험하시게 됩니다. 교육 과정은 1단계, 2단계, 3단계로 체계적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온라인 동영상 강의를 통해 깊이 있는 이론을 배우고, 오프라인 소그룹 모임에서 나눔과 실천을 병행합니다. 각 단계는 총 13주 과정이며, 매주 목요일 저녁 7시에 모입니다.

- ▶ 훈련 일정: 8월 27일(목)~11월 19일(목), 매주 목요일 오후 7시, 총 13주
- ▶ 훈련 장소: 조이채플(교회 사무실 옆)
- ▶ 훈련 신청: QR 코드 스캔 또는 등록 부스
- ▶ 문의: 장지봉 집사 (949)899-7334



예배 봉사자

주일예배 대표기도(8월)	8/16: ①부-박지학	②부-백영만	③부-변 진	④부-김수빈
	8/23: ①부-박종민	②부-선상균	③부-안경수	④부-김지수
	8/30: ①부-송기평	②부-송용훈	③부-송석원	④부-김진형
헵시바 토요새벽 대표기도(8,9월)	8/15: 이삼열	8/22: 이상열	8/29: 이상훈	9/5: 이세웅
강단꽃(8월)	8/9: 오경희, 장다윤	8/16: 윤주원, 조나원, 최하자	8/23: 최하자	8/30: 이수민

[의무실(오전 8:30~오후 1:00)]

이번주 | 의사-한우광(한 의사), 간호사-김명숙 다음주 | 의사-최인섭(치과), 간호사-이혜경

선교후원

[파송선교사] 창의적접근지역 | 손승옥, 김진영, 서반석(이루다), 오감사(오사랑), 장주원(장한나), 이희숙, 장과장(주열매), 호세아(그 사랑), Nader(Dina), Yeshua, Reza
 조지아 | 김현수(고봉주) 캄보디아 | 황순현(황현주), 이석배
 [협력선교사] 기니비사우 | 유요한(유글로리아) 니카라과 | 박우석(이현숙) 이스라엘 | 장이삭(정인나)
 멕시코 과달라하라 | 허익현(김영중) 몽골 | 을지바트(민애령), Kathy Ribbs 베트남 | 성경(양선) 브라질 | 브레노(에스터)
 온두라스 | 이동철(이수민) 우간다 | 박민수(이순영) 일본 | 강민숙(변선영) 캄보디아 | 김우정(박정희), 김인성
 코스타리카 | 금상호(김미경) 탄자니아 | 황광인(황영숙) 태국 | 박상선(신영선)
 창의적접근지역 | 길예평(길진명), 이상훈 문화선교 | 공 민(The Bridge), 김도현(나비공장)
 *선교기관 | 나눔선교회, 밀알선교회, 바실레이아 신학교, 소망 소사이터티, 한미가정상담소, Gift of Vision, GMMMA, GP미주본부, AU&W, New Hope 선교 유치원, QTM America, Silk Wave Mission, The Center for BAM(CBAM), 푸른초장의 집
 *특별선교 | 복음방송(GBC), CTS, CGN TV
 *문서선교 | 기독교일보, 미주 크리스천 신문, 크리스천 위클리

베델 알림판

◆ **김한요 목사님과 함께 떠나는 마지막 수요일섬여행 '인생바다에서 만난 구명선'** 이번 주는 제2강 '예수, 대속물'이 진행됩니다. 등록하셨지만 아직 교재를 받지 않으신 분들은 오늘 코트야드 부스에서 수령해 주시기 바라며, 교재비는 권당 \$1입니다. 수요일섬여행은 사전 등록을 하지 않으신 성도님들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일시/장소: 8월 12일(수) 오후 7시, 본당

자녀 돌봄: 유아·유치 및 K-5학년 대상

개근 혜택: 8주 모두 참석하신 분께 소정의 선물을 드립니다.

문의: 조광중 집사 (949)706-4168

◆ **베델 제자훈련생 모집** 차별화된 베델제자훈련을 만나보세요.

양육반 신청 기간: 8월 23일(주일)까지

양육반 오리엔테이션: 8월 31일(주일) 오후 12시 45분, 비전채플(한/Eng)

제자훈련 신청 기간: 8월 23일(주일)까지

제자훈련 오리엔테이션: 9월 5일(주일) 오후 12시 45분, 비전채플(한/Eng)

신청 방법: 교회 홈페이지 또는 QR코드

문의: 이승호 집사 (714)510-1364, (Eng) Rev. James Suh (562)447-6947



◆ **BAM 가을학기 훈련생 모집** 베델 BAM 모집 가을학기 훈련 1-3단계 훈련생을 모집합니다. (7면 참고)

신청 기간/방법: 8월 9일(주일)-23일(주일), 본당 앞 부스나 QR 코드

훈련 일정: 8월 27일(목)-11월 19일(목) 매주 목요일 오후 7시, 총 13주

문의: 장지봉 집사 (949)899-7334



◆ **화요큐티모임 '울림'** 화요큐티모임 울림 하반기가 시작됩니다. 한 주 동안의 QT 말씀으로 예배 드리고 소그룹으로 모여 나눔을 하는 모임입니다. QT에 관심이 있고 도움을 받기 원하는 베델교인 남녀노소 모두가 참여하실 수 있고, 소그룹 모임은 매 학기 접수 기간 중 신청한 베델 성도(교적번호를 받은)로 이루어집니다.

소그룹 접수: 8월 9일(주일)-8월 23일(주일)까지 3주간 QR 코드 및 접수 부스에서

첫 예배 일시/장소: 8월 25일(화) 오전 10시, EM채플

모임 기간/문의: 8월 25일(화)-11월 17일(화)까지 13주간, 박은혜 권사 (949)910-0327



◆ **제65차 전도폭발 훈련생 모집** 복음을 배우고, 훈련하며, 실제 현장에서 전하는 은혜의 전도폭발 자리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훈련 기간: 8월 25일(화)-12월 1일(화) 15주 과정

훈련 시간: 매주 화요일 오후 7시 유년부실

신청 방법: QR 코드, 본당 앞 부스

문의: 최동주 집사 (602)466-4477



Bethel Announcements

◆ **셀목자 뱅킷** 봄학기 동안 열심히 셀을 섬기고 새로운 가을학기를 준비하는 셀목자님들을 위한 셀목자 뱅킷이 열립니다. 셀목자님들께서 모두 참석하셔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즐거운 교제의 시간 되길 원합니다.

일시/문의: 8월 29일(토) 오후 4시, 비전채플, 김학남 집사 (408)806-4133

◆ **Beyond the Blue 가정 회복 영상 세미나** 사별(가족 포함), 이혼(별거 포함)으로 인한 슬픔과 고통을 치유하고 회복함으로써 하나님 안에서 소망과 새 삶의 변화를 돕는 영상 세미나입니다.

일시/장소: 9월 4일(금)-12월 4일(금) 13주간, 조이채플(오후 6시부터 식사)

등록: 코트 야드 부스 혹은 홈페이지

문의: 전정례 권사 (714)240-3718, 오경희 전도사 (262)224-7797

◆ **교회학교 졸업식** 오늘 각 예배 시간에 교회학교 졸업식이 있습니다. 졸업하는 학생들은 8월 16일(주일)부터 새로운 부서에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새부서에서 자녀들이 잘 적응하고 지속적으로 예수님 안에서 성장해 나갈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 **BYM QARA 중등부 미디어팀** BYM QARA 중등부 미디어팀에서 함께 섬길 학생을 모집합니다! 예배를 미디어로 함께 세워갈 열정 있는 학생들의 많은 지원을 기다립니다.

대상/지원 방법: 7-8학년, QR 코드

섬김 시간: 매주 금요일 오후 4-6시



◆ **큐티인 8월호 판매** QTin 8월호가 나왔습니다. 카페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말씀으로 새롭게 시작하는 8월이 되시길 바랍니다.

문의: 김광영 장로 (949)233-0677

◆ **기도해 주세요**

태국(박상선, 신영선 선교사) 단기선교가 8월 10일(월)-8월 18일(화)까지 있습니다. 2부 예배 시 파송기도 합니다. 안전한 선교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 **축하해 주세요**

예삶의 김도윤 군과 김에스터 양의 결혼식이 7월 25일(토) 한국에서 있었습니다.

◆ **위로해 주세요**

- 故 이병주 성도님(김애경 집사의 시부)께서 7월 28일(화) 한국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 故 이창길 목사님(김정지 권사의 부친, 김교식 장로의 장인)께서 8월 6일(목)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교회학교 주중 모임 안내

■ AWANA(어와나):

- Sparks / 금요일 오후 7시, 각 클래스(K-2학년)

- Truth&Training / 금요일 오후 7시, 각 클래스(3-5학년)

■ 중,고등부:

- BYM(영어중고등부) / 금요일 오후 7시 30분, 비전채플

- CIM(한어중고등부) / 금요일 오후 7시 30분, 살롬채플

■ 한국학교: 토요일 오전 9시 30분, 한국학교 각 교실

■ 아기학교: 수요일(15-48개월) 오전 9시 45분, 할렐루야채플

주중 예배 및 기도모임 안내

■ 주중 새벽기도회(화-금): 오전 5시 30분, 본당

■ 헬시바 새벽기도회(토): 오전 6시, 본당/온라인

■ 베델 수요일저녁예배: 오후 7시 30분, 본당

■ 예살금요일예배(청년): 오후 7시 30분, 임마누엘채플

■ 주일 레위기기도 모임: 1-3부 예배시간 중, 컨퍼런스룸

베델뉴스 편집위원

■ 발행인: 김한요 담임목사

■ 편집장: 김경자 권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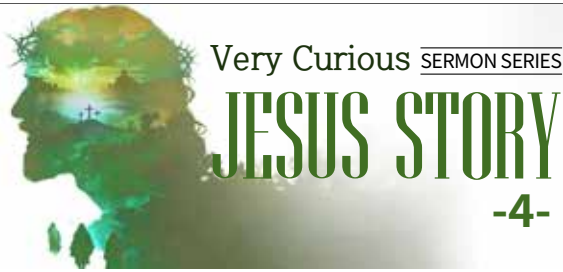
■ 기 자: 강정훈 집사, 강은혜 집사, 권두경 집사, 김규현 집사, 김유미 권사, 배민정 집사, 박혜성 권사, 안정선 권사, 이혜림 집사, 이소영 권사, 황수정 집사

■ 사진 기자: 박상근 장로, 최호경 집사, 차규양 장로

■ 번 역: Grace Yi 전도사

비전 주차장 3377 Michelson Drive, Irvine, CA 92612 *주차 시 (Employee Reserved Parking)은 피해서 주차하시길 부탁드립니다. ◆ 베델뉴스 원고파일은 bethelnews@bkc.org로 보내주세요.

베델/갈릴리수양관 31600 El Cariso Trail, Lake Elsinore, CA 92530 ◆ 수양관전화번호(예약문의) (949) 943-9697 ◆ E-MAIL bgrcenter@hotmail.com



Sunday Worship Sermon Note

Speaker: Rev. Bryan Kim

Why is There Hell When God is All About Love? (John 3:16–21)

1. There are things that parents forbid their children from doing. However, children think that this means their parents do not love them. In similar way, have you ever thought that God's love for us that we see is proof that He does not love us? (v. 17-18)

Apply to Life



2. What is the first reason that we are judged? Please explain with an example. (v. 19)

3. 'Sin is loving the darkness, not loving God, that is, the () of love is completely wrong.'
Read the referenced verses below and discuss their meaning. (Ref: Psalm 50:21, Gen 3:5)

4. The second reason we are judged is that we hate the light. (v. 20) Hearing the Word is like God shining His light upon our souls . Let us verify the function of light by filling in the blank below.
(Ref: Isaiah 53:4-5)

'Light reveals the () hidden in darkness and leads to the path of healing,
().'

5. Dear Cell family, come out into the light. Sin becomes visible when you stand in the middle of the light. However, remember that the cross is larger than sin, grace is larger than any wound, and the love of Jesus Christ is always larger than any failure. Did you welcome Jesus, the Light, into your heart today?



English translations for
worship services via
Discord